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품소비 행태 분석\* -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

##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Behavior of Elderly Consumers by Elderly Consumers Competency Type - Based on the 2023 Food Consumption Behaviors Survey -

성혜진\*\* · 서정운\*\*\*†  
Sung, Hye-Jin · Seo, Jung-Woon

### ABSTRACT

As of December 2024, the elderly consumers is emerging as a major target class in all industries as it enters a super-aged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elderly consumers is also growing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tracted 1,004 elderly consumers aged 65 to 79 using the 2023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Data, and analyzed food consumption behavior according to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type. The SPSS 26.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as an analysis tool.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K-mean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cross-analysis ( $\chi^2$ )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lder consum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od consumption patterns, and attitudes toward food safety between clu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levels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older consumers, and based on this, highlight the need to establish customized strategies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older consumers in the food industry.

**key words** : Elderly Consumers, Food Consumption Behavior, Agri-Food Consumer Competency, 2023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외식조리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Foodservice and Culinary Science, PaiChai University. e-mail: jin8083@pcu.ac.kr

\*\*\*† 청주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and Foodservice, Cheong Ju University. e-mail: gentleman@cju.ac.kr

##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주민등록 기준으로 1,024만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인구 5,122만명의 20%를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7%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함에 따라 이제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한국일보, 2024.12.24.).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의미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령인구가 소비자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정지훈 외, 2017),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통계청 2024, 국가통계포털, 2024)과 고령 소비자의 소비 영향력 증가(김숙경, 2024), 기능성 식품 및 온라인 유통 시장 확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4), 국내외 고령 소비자 지원 정책(보건복지부, 2023; 유럽보험연금감독청, 2023) 등 산업적 배경과 더 나아가 고령 소비자가 외식식품산업의 주요 타겟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 Lim(2020)은 고령층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식품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령 인구는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식품에도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에 기반한 결과로, 익숙한 맛과 형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소비자의 건강소비에 대한 소비가치가 식품 구매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장첩사·김성민, 2024). 고령 소비자는 기술적 장벽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농식품 선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클린라벨(clean label) 식품 패키지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고령 소비자의 식품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우정·김용화, 2021). 또한 식품 소비자 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숙·김지은, 2020).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행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중 한국 내 고령 소비자들은 건강관련 품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다(Park et al., 2023; Kim & Park, 2023). 음식 배달 서비스가 대세인 현시점에서 고령 인구의 식품 소비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Rha et al., 2023; Suh, 2023). 고령 소비자는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식품을 선호하며, 전통적인 식품에도 높은 선호도를 보고 있다(Shim et al., 2023).

따라서 외식산업은 고령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농식품 시장의 소비 패턴에 있어서 고령 소비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판단하고 이들의 소비자역량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고령 소비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 중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를 활용한 논문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식생활 역량(이성림 외, 2020), 1인 가구의 식생활에 있어서의 조절효과(전상민, 2018), 가구 유형별 농식품 소비자역량 조사(김미라, 2023), 성인 가구원에 대한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따른 식품소비행태조사(김은경 외, 2021; 김지수 외, 2022; 김경희 · 윤지영, 2023) 등으로 주로 성인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군집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를 수행하여 각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식생활 행태 및 식품 안전성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고령 소비자 맞춤형 식품 산업 전략 수립과 맞춤형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선 등에 실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

농식품 소비자역량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농식품 구매역량, 식생활역량, 소비자 시민역량으로 구성되며, 각각 구매 시 정보 활용 능력,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권익과 책임의식을 포함한다(이계임 외, 2014; 김은경 외, 2021). 농식품 소비자 유형은 건강 지향형, 편리성 지향형, 가격 민감형, 품질 중시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 지향형 소비자는 건강에 유익한 기능성 식품을 선호하며, 영양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편리성 지향형 소비자는 조리의 간편함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식품을 선호한다. 가격 민감형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예산 내에서 소비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품질 중시형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가장 중요시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유형은 소비자의 가치관, 생활 양식, 그리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지수 외, 2022; 김미라, 2023; Geuens, 2023).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Agrifood Consumer Competency Index; ACCI)를 식품소비단계로 개념 일반화하여 하위영역을 식품구매역량지수, 식생활역량지수, 시민역량지수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김은경 외(2021)는 농식품 소비자역량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의 식품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식사에 만족하고,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등 식습관과 식품 소비행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가 책임 있는 소비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소비자역량이 경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윤경화 외, 2020; 김지수 외, 2022). 맹아름 외(2021)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들의 건강 상태 및 영양 섭취 현황을 식품 안정성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식품 불안정성이 있는 노인들은 만성 질환의 높은 발생률과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소비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길진모(2021)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남녀 노인의 건강 및 영양 섭취 실태를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 노인들이 더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소비자역량과 영양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 고령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

고령 소비자는 식품 소비에서 독특한 패턴을 보인다. 첫째,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고령 소비자는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익숙한 맛과 형태의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셋째, 고령 소비자는 소득수준과 물리적 이동성에 따라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한된 예산과 이동성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집 근처의 상점이나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행태는 고령 소비자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미라, 2023; Shim et al., 2023). 고령 소비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들은 대개 혈압 관리, 당뇨 예방,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선택한다. Calligaris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음식의 구조가 고령 소비자의 음식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고령층이 특정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식품을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경제적 요인은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령 소비자들이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옥영 · 최영진, 2020; Lee et al., 2022). Pinho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고령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환경이 추가공식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이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 인식과 실제 소비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인식이 식품 구매 시 라벨 확인 빈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국내산 식품에 대한 선호도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식품 라벨 확인이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라벨을 자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영양 성분 및 원산지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매 결정을 내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령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과 디지털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배수영 · 구혜경, 2022)에서는 디지털 소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 소비자들은 디지털 유통 채널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송주완, 2020). 이는 식품 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령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변화는 고령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미경 외(2017)는 외식 빈도와 건강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식 빈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건강 인식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식 시 영양 불균형이 있는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허소정 · 배현주(2020)은 배달 및 테이크아웃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소비 패턴이 소비자의 식품 선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가공식품 및 고칼로리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령 소비자 간 식생활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고 이들에게도 세대 간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령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와 합리적인 식품 소비를 위해서는 고령 소비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식품음료신문, 2023.12.11.).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고령 소비자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실시되고 있지만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구분하여 시장세분화를 실시하여 군집별 특성을 확인하고 식생활행태 및 식품안전성·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은 어떠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그리고 집단간의 시장세분화 특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생활행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에서 매년 실시하는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 중 2023년 성인 가구원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주구입자, 성인가구원, 청소년가구원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가구원(만19세~만79세) 통계 데이터 중 고령 소비자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 만79세 미만을 대상으로 다시 추출하여 1,004부의 설문 응답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사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3년 5월19일~8월 1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사전에 참여 요청을 한

후 가구 명부를 작성하고 훈련된 면접원이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원 인터뷰(CAPI)와 자기기입조사(PAPI 및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2023 식품소비행태 조사 중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월평균소득, 독거여부, 운동여부 등 총 6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식품소비단계로 개념화하고 하위영역을 식품구매역량지수, 식생활역량지수, 시민역량지수로 구분하였다. 식품구매역량지수는 소비자가 농식품 및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농식품 표시/정보이용역량과 농식품 구매환경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생활역량지수는 식품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단계에서 갖춰야 할 역량으로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역량지수는 소비자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에 관한 역량으로 소비자 권익역량과 지속가능 소비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분석함에 있어서 시민역량지수에 대한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식품구매역량지수인 농식품 표시/정보이용역량 10개 측정항목과 농식품 구매환경역량 8개 측정항목, 그리고 식생활역량지수인 건강한 식생활역량 10개 측정항목과 안전한 식생활역량 10개 측정항목으로 총 58개 측정항목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PSS ver.26.0)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2023 식품소비행태 조사 중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는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기에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여 요인을 나누는 후 신뢰도를 얻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도출된 요인을 활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 중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을 실시하여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유사한 집단으로 군집을 분류하였고 생성된 군집 간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정방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식품소비행태 등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

석( $\chi^2$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성인가구원 자료(N=5,811) 중, 만 65세 이상의 응답자료(N=1,004)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고령 소비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n=1004)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412	41.0	월평균 소득 특	100만원미만	258	25.7
	여	592	59.0		100-150만원 미만	196	19.5
연령	만65~만69세	628	62.5		150-200만원 미만	174	17.3
	만70세 이상	376	37.5		200-250만원 미만	139	13.8
교육 수준	미취학	46	4.6		250-300만원 미만	93	9.3
	중졸 이하	446	44.4		300-350만원 미만	78	7.8
	고등학교 졸업	462	46.0		350-400만원 미만	29	2.9
	대학교 졸업	49	4.9		400-450만원 미만	21	2.1
	대학원 이상	1	0.1		450만원 이상	16	1.6
독거 여부	독거	312	31.1		운동 여부	규칙적인 운동 ○	264
	동거	691	68.9		규칙적인 운동 X	740	73.7

### 2.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중 농식품 표시/정보이용역량, 농식품 구매환경역량, 건강한 식생활역량과 안전한 식생활역량 측정항목 38개를 투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의 수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변수에 대하여 요인화하였으며, 측정항목 중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13개를 삭제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설명력은 57.408%로 또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도분석에서는 Cronbach 's  $\alpha$  값이 0.83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강병서·김계수, 2009),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농식품 소비지역량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설명력 (%)	Cronbach's $\alpha$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6) 농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 판매대 등에 표시된 사항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	.737	9.346	37.384	.894
	(10) 농식품 관련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	.724			
	(8)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	.705			
	(4) 농식품 구입 시 안전한 농식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인증(GAP, HACCP 등)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	.702			
	(7) 농식품의 영양소성분 표시는 구입 결정시 중요	.678			
	(3) 농식품 구입 시 안전관련 인증표시(GAP, HACCP 등)는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659			
	(2)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	.634			
	(9) 농식품 구입시 수 많은 정보 중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별해내는 것이 필요	.632			
	(5) 농식품 포장에 표시된 사항들은 모두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	.572			
건강한 식생활	(9)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 건강에 좋은 농식품들을 알고 있음	.680	2.798	11.193	.837
	(8) 적절한 영양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	.673			
	(7) 영양 균형을 위해 매끼니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을 먹으려고 노력	.626			
	(10) 평소 채소, 과일과 통곡류 등을 많이 섭취	.625			
	(5)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식사량을 조절	.614			
	(2) 아침식사 챙겨먹고 규칙적인 식사하는 편	.594			
	(3)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식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	.493			
안전한 식생활	(9) 식품 유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상한 것 같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함	.689	1.123	4.493	.836
	(10) 상한 것이 의심되는 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아까워도 섭취하지 않음	.674			
	(1) 식품 구입 시 포장상태와 유통기한 확인이 필요	.673			
	(4) 식품 구입 시 포장상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	.631			
	(5) 음식 조리 시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가 중요	.627			
	(6) 음식 조리 전에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자주 소독	.484			
	(7) 조류독감 등 식품 위생안전 사고 발생 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	.438			
농식품 구매환경	(7) 필요시 온라인을 통해 농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	.880	1.084	4.337	.893
	(8) 온라인 구입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식품 구매	.875			

\* 도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력은 57.408%임  
 \*\* 전체표본적합도(Kaiser's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944  
 \*\*\*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11905.477, df=300, Sig.=0.000

본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농식품 구매환경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1			
농식품 구매환경	.469**	1		
건강한 식생활	.565**	.200**	1	
안전한 식생활	.499**	.147**	.719**	1
평균(표준편차)	3.524(.607)	2.876(1.142)	3.679(.540)	3.775(.539)

Note :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0.01

### 3.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요인별 군집분석

본 연구는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을 생성하였으며, 추출된 군집별 농식품 소비자역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군집과 요인 간에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duncan multiple range-test)을 실시하였으며,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 정도에 따라서 H(High) > M(Middle) > L(Low)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 후 각 항목들의 상관도를 고려하여 군집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군집1은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식품 구매 환경만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군집2는 전반적인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중간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농식품 구매 환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군집3은 농식품 소비자역량의 모든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따른 군집분석

요인	군집분류			F값	P값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3.171L (.353)	3.284M (.713)	3.917H (.391)	234.820	.000***
농식품 구매환경	2.994M (.520)	1.388L (.486)	3.835H (.486)	2159.584	.000***
건강한 식생활	3.164L (.409)	3.728M (.524)	3.975H (.353)	307.786	.000***
안전한 식생활	3.251L (.423)	3.884M (.515)	4.036H (.356)	297.579	.000***

주 : 숫자는 평균값(표준편차),

\*\*\* p<.001, \*\* p<.01, Duncan 사후검정에 근거한 평균의 차이 (H>M>L)

#### 4.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시장세분화 특성 비교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생성된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과 일반적 특성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교육수준과 월평균소득의 경우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값을 코딩 변경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군집1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항목별 비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남:여=42:58)이고, 연령도 만 69세 미만이 월등히 많은 편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월평균소득 수준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군집2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으며(남:여=35:65), 만 70세 전후의 비율이 비슷한 편(51:49)으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만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월평균소득 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남:여=45:55), 나이는 만 69세미만이 2배 이상으로 많으며(67:33), 월평균 소득수준은 다른 군집에 비해 고소득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시장세분화 특성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성별 ( $\chi^2=6.054^*$ )	남	115(11.5)	106(10.6)	191(19.0)	412(41.0)
	여	161(16.0)	193(19.2)	238(23.7)	592(59.0)
나이 ( $\chi^2=26.426^{***}$ )	만65~만69세	188(18.7)	151(15.0)	298(28.8)	628(62.5)
	만70세 이상	88(8.8)	148(14.7)	140(13.9)	376(37.5)
교육수준 ( $\chi^2=84.561^{***}$ )	미취학	10(1.0)	31(3.1)	5(0.5)	46(4.6)
	중졸 이하	107(10.7)	173(17.2)	166(16.5)	446(44.4)
	고등학교 졸업	148(14.7)	86(8.6)	228(22.7)	462(46.0)
	대학교대학원 이상	11(1.1)	9(0.9)	30(3.0)	50(5.0)
독거여부 ( $\chi^2=.552$ )	1인가구	88(8.9)	95(9.5)	128(12.7)	312(31.1)
	다인가구	187(18.6)	204(20.3)	301(30.0)	692(68.9)
월평균소득 ( $\chi^2=57.199^{***}$ )	100만원미만	47(4.7)	113(11.3)	98(9.8)	258(25.7)
	100-150만원 미만	56(5.6)	68(6.8)	72(7.2)	196(19.5)
	150-200만원 미만	61(6.1)	36(3.6)	77(7.7)	174(17.3)
	200-250만원 미만	42(4.2)	36(3.6)	61(6.1)	139(13.8)
	250-300만원 미만	30(3.0)	23(2.3)	40(4.0)	93(9.3)
	300-350만원 미만	24(2.4)	12(1.2)	42(4.2)	78(7.8)
	350만원 이상	16(1.6)	11(1.1)	39(3.9)	66(6.6)

\*p<0.05, \*\*p<0.01, \*\*\*p<0.001

## 5.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생활행태 차이분석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로 고령 소비자의 식생활행태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난 현재 식생활만족도 여부, 국산농산물 여부의 관심도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변수 값을 코딩변경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군집1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여부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중간정도로 나타나고 채식주의 정도는 중간정도이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편으로,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약간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이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그닥 높지 않은 편이며, 채식주의 정도는 간헐적채식 또는 비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3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채식주의 정도는 채식주의 또는 준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을 것이라는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생활행태 차이분석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식사시간 규칙성 여부 ( $\chi^2=11.644^{**}$ )	규칙적인 식사시간	244(24.3)	286(28.5)	383(38.1)	913(90.9)
	불규칙적인 식사시간	32(3.2)	13(1.3)	46(4.6)	91(9.1)
현재 식생활만족도 여부 ( $\chi^2=25.876^{***}$ )	보통(불만족 포함)	126(12.5)	79(7.9)	134(13.3)	339(33.8)
	(매우) 만족	150(14.9)	220(21.9)	295(29.4)	665(66.2)
국산농산물 여부 관심도 ( $\chi^2=27.134^{***}$ )	(매우) 관심없는 편	13(1.3)	9(0.9)	2(0.2)	24(2.4)
	보통	138(13.7)	116(11.6)	166(16.5)	420(41.8)
	(매우) 관심있는 편	125(12.5)	174(17.3)	261(26.0)	560(55.8)
지역농산물 여부 관심도 ( $\chi^2=13.091^{**}$ )	보통(무관심 포함)	172(17.1)	165(16.4)	208(20.7)	545(54.3)
	(매우) 관심있는 편	104(10.4)	134(13.3)	221(22.0)	459(45.7)
친환경식품 여부 관심도 ( $\chi^2=95.449^{***}$ )	(매우) 관심없는 편	24(2.4)	74(7.4)	21(2.1)	119(11.9)
	보통	158(15.7)	153(15.2)	199(19.8)	510(50.8)

	(매우) 관심있는 편	94(9.4)	72(7.2)	209(20.8)	375(37.4)
채식주의 정도 ( $\chi^2=71.422^{***}$ )	채식주의자	9(0.9)	0(0.0)	12(1.2)	21(2.1)
	준채식주의자	20(2.0)	2(0.2)	53(5.3)	75(7.5)
	간헐적채식주의자	27(2.7)	5(0.5)	42(4.2)	74(7.4)
	비채식주의자	220(21.9)	292(29.1)	322(32.1)	834(83.1)
식물성고기 의미인지정도 ( $\chi^2=39.805^{***}$ )	전혀 모름	49(4.9)	87(8.7)	48(4.8)	184(18.3)
	들었지만 정확히 모름	203(20.2)	185(18.4)	326(32.5)	714(71.1)
	잘 알고있음	24(2.4)	27(2.7)	55(5.5)	106(10.6)
향후 식물성고기 섭취의향 ( $\chi^2=43.379^{***}$ )	절대 먹지 않을 것	5(0.5)	7(0.7)	12(1.2)	24(2.4)
	아마 먹지 않을 것	20(2.0)	40(4.0)	20(2.0)	80(8.0)
	잘 모르겠음	134(13.3)	184(18.3)	244(24.3)	562(56.0)
	아마 먹을 것	116(11.6)	65(6.5)	152(15.1)	333(33.2)
	반드시 먹을 것	1(0.1)	3(0.3)	1(0.1)	5(0.5)

\*p<0.05, \*\*p<0.01, \*\*\*p<0.001

## 6.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

3개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로 고령 소비자의 식품안전성과 식품표시사항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나 경우에는 변수 값을 코딩 변경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농식품 소비자역량 군집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 차이분석

구분		군집1 (n=276) 27.5%	군집2 (n=299) 29.8%	군집3 (n=429) 42.7%	계 (n=1004) 100.0%
식품 안전성 문제 관심도 ( $\chi^2=23.783^{***}$ )	(매우) 불만족	16(1.6)	21(2.1)	12(1.2)	49(4.9)
	보통	149(14.8)	150(14.9)	178(17.7)	477(47.5)
	(매우) 만족	111(11.1)	128(12.7)	239(23.8)	478(47.6)
우리나라 식품 안전성 체감정도 ( $\chi^2=51.423^{***}$ )	60~69	21(2.1)	33(3.3)	27(2.7)	81(8.1)
	70~79	50(5.0)	96(9.6)	76(7.6)	222(22.1)
	80~89	92(9.2)	94(9.4)	130(12.9)	316(31.5)
	90~99	87(8.7)	51(5.1)	163(16.2)	301(30.0)
	100	26(2.6)	25(2.5)	33(3.3)	84(8.4)
식품 표시사항 만족도 ( $\chi^2=18.883^{**}$ )	(매우) 불만족	9(0.9)	1(0.1)	6(0.6)	16(1.6)
	보통	119(11.9)	149(14.8)	160(15.9)	428(42.6)
	(매우) 만족	148(14.7)	149(14.8)	263(26.2)	560(55.8)
식품표시에 대한 신뢰도 ( $\chi^2=10.774^*$ )	(매우) 신뢰하지 않는 편	10(1.0)	1(0.1)	12(1.2)	23(2.3)
	보통	127(12.6)	147(14.6)	180(17.9)	454(45.2)
	(매우) 신뢰하는 편	139(13.8)	151(15.0)	237(23.6)	527(52.5)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인지정도 ( $\chi^2=73.907^{***}$ )	전혀 모름	80(8.0)	136(13.5)	73(7.3)	289(28.8)
	들었지만 정확히 모름	174(17.3)	132(13.1)	297(29.6)	603(60.1)
	잘 알고있음	22(2.2)	31(3.1)	59(5.9)	112(11.2)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품 구매의향	(전혀) 의향 없음	20(2.0)	17(1.7)	19(1.9)	56(5.6)

(χ <sup>2</sup> =16.032**)	보통	120(12.0)	163(16.2)	180(17.9)	463(46.1)
	(매우) 의향 있음	136(13.5)	119(11.9)	230(22.9)	485(48.3)

\*p<0.05, \*\*p<0.01, \*\*\*p<0.001

군집1은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반적 식품 안전성에 대한 체감 정도는 80~90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인 경향이 높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 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60~79의 비율이 높아 다른 군집에 비해 체감 정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식품 표시현황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는 보통 정도이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품의 구입의향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90~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인지도가 높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품의 구매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들의 농식품 소비자역량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식품소비 행태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령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자역량지수 중 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역량, 농식품 구매환경 역량, 건강한 식생활 역량, 안전한 식생활 역량의 네 가지 요인을 활용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3개의 군집으로 도출하였다. 군집1은 전반적인 소비자역량이 낮으나 구매환경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집, 군집2는 중간 수준의 소비자역량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구매환경 역량이 낮은 군집, 군집3은 모든 소비자역량이 높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3개 군집의 일반적 특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군집1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항목별 비율이 매우 유사한 편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고, 만 69세 미만이 월등히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소득수준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군집2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으며(남:여=35:65), 만 70세 전후의 비율이 비슷한 편(51:49)로 다른 군집에 비해 만70세 이상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중졸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고, 월평균 소득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남:여=45:55), 만 69세 미만이 2배 이상으로 많으며(67:33), 소득수준은 다른 군집에 비해 고소득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집별 식생활행태를 살펴보면 군집1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는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여부의 관심도가 낮은 편이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중간정도이고, 채식주의 정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채식중의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들었지만 잘 모르는 편으로,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약간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편으로 현재 식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그닥 높지 않은 편이며, 채식주의 정도는 간헐적채식 또는 비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3은 식사시간이 평균보다 불규칙한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 식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고, 국산농산물, 지역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보통 이상으로 높으며, 채식주의 정도는 채식주의 또는 준채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식물성고기의 인지여부는 잘 알고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식물성고기의 섭취의향은 아마 잘 모르거나 먹을 것이라는 비율이 다른 군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군집별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군집1은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전반적 식품안전성 정도 체감 정도는 80~90정도로 나타났다. 군집2는 평소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인 경향이 높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60~79의 비율이 높아 다른 군집에 비해 체감 정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식품 표시현황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는 보통 정도이며,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품의 구입의향은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식품안전성 정도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는 90~1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 인지도가 높고 향후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품의 구매의향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학문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한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단일 지표로

측정하거나 제한된 인구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이계임 외, 2014; 김은경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 소비자역량을 네 가지 요인(농식품 표시/정보 이용, 건강한 식생활, 안전한 식생활, 구매환경)을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고령소비자들을 시장세분화하여 고령 소비자의 다차원적 소비 행동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농식품 소비자역량 연구를 고령인구 집단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im et al. (2020) 연구에서는 고령 소비자들이 건강, 경제적 여건, 문화적 요인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유형화하지 못한 한계점을 본 연구는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 고령 소비자들을 농식품 소비자역량 수준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단순 비교를 넘어 소비자 행태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 집단을 특정하여 농식품 소비자역량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통한 각 집단별 식생활행태 및 식품안전성 및 식품표시사항에 관해 차이가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농식품 소비자역량이 고령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고령 소비자들을 외식산업에서의 중요한 타겟으로 보고 이를 세분화하여 각 세분시장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 소비자군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량이 낮은 군집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정보 이해를 돕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기획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채널 강화의 필요성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식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 및 제공으로 구매환경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셋째, 고령 맞춤형 상품 개발 군집분석 결과, 고령 소비자는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이나 건강기능성식품 같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화된 전략으로 지역별 특성과 고령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군집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홍보 및 판매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기반으로 맞춤형 제품 개발, 마케팅 및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및 전통식품 소비 선호도가 높은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2023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연구 표본이 특정 시점의 자료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령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

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 소비자의 식품 소비 패턴은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 디지털 활용 수준 등 다양한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소비행태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병서 · 김계수 (2009). 「사회과학 통계분석」. 한나래: 서울.
- 국가통계포털 (2024). 고령 소비자 소비지출 비중 전망 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117\\_11771\\_002\\_00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7\\_071\\_F003%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_g\\_mode%3Dko%26orgId%3D117%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117_11771_002_006%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117_071_F003%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_g_mode%3Dko%26orgId%3D117%26)
- 길진모 (2021).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남녀 노인의 건강 및 영양섭취 실태 비교: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4(1): 39-53.
- 김경희 · 윤지영 (2023). 농식품소비지역량 정도에 따른 친환경식품, HMR구매 및 외식행태 분석- 2022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6(6): 588-604.
- 김미라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이용한 가구 유형별 농식품 소비자 역량 및 식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2(4): 414-425.
- 김숙경 (2024). 고령친화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산업연구원」, 7: 7-20.
- 김은경 · 권용석 · 이다은 · 장희진 · 박영희 (2021). 농식품 소비지역량지수와 식품소비행태에 관한 연구: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4(2): 199-210.
- 김지수 · 서상택 · 김선웅 (2022). 소비역량과 식품안전 인식이 원산지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45(1): 39-62.
- 맹아름 · 이지현 · 윤은주 (2021). 식품안전성 수준에 따른 한국노인의 건강상태와 영양섭취현황: 제7기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4(2): 179-198.
- 배순영 · 구혜경 (2022). 코로나 19 이후 고령소비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디지털 인식 변화 연구: 2019년과 2021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활용. 「소비자문제연구」, 53(2): 83-113.
- 보건복지부 (2023). 고령친화식품 산업 육성 정책 발표.  
Retrieved from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79326&mid=a10411010100&nPage=1&tag=&utm\\_source=chatgpt.com](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19&list_no=1479326&mid=a10411010100&nPage=1&tag=&utm_source=chatgpt.com)
- 송주완 (2020). Kano 모형을 이용한 외식업체 키오스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9(6): 283-304.
- 식품유통신문 (2023.12.11.). [2023 식품 소비행태] 고령자 건강한 식생활 유형별 지원 · 교육.

- Retrieved from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36>
- 윤경화·전정연·이자운·서지연·임성연·임성빈(2020).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제7기) 자료를 이용한 고령인구의 식품섭취 패턴분석. 「호텔리조트연구」, 19(4): 243-257.
- 유럽보험연합감독청(EIOPA)(2023). Consumer Trends Report 2023.  
Retrieved from [https://www.eiopa.europa.eu/document/download/015404b4-a289-41a2-a044-17fa6a96799b\\_en?filename=EIOPA-BoS-23-470-+Consumer+Trends+Report+2023.pdf&utm\\_source=chatgpt.com](https://www.eiopa.europa.eu/document/download/015404b4-a289-41a2-a044-17fa6a96799b_en?filename=EIOPA-BoS-23-470-+Consumer+Trends+Report+2023.pdf&utm_source=chatgpt.com)
- 이계임·반현정·박기환·황운재(2014). 농식품 소비역량지수 개발과 계측. 「농촌경제」, 37(3): 59-77.
- 이성림·최일숙·김정훈(2020).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역량-식사행태와 식생활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4): 483-496
- 장첩사·김성민(2024). 한국과 중국 노인의 건강소비에 대한 소비가치가 구매만족 및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3(3): 89-102.
- 전상민(2017). 소비자의 식품위해 불안이 식품표시 확인과 안전표시 식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 안전표시 지식수준에 따른 차이검증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20(1): 87-108.
- 전상민(2018). 1인 가구의 식생활 양식 유형화 및 유형별 식생활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역량의 조절효과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4(4): 55-81.
- 정옥영·최영진(2020). 인구고령화가 식음료 산업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호텔리조트연구」, 19(6): 347-363.
- 정지훈·고준·김근수(2017). 고령자의 전자상거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령자 대상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26(4): 355~378.
- 제미경·전향란·이영애(2017). 외식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용 여부에 따른 소비자집단별 식생활 소비행태 차이 분석. 「소비문화연구」, 20(3): 27-50.
- 최경숙·김지은(2020). 식품위해에 대한 소비자 불안과 식품소비자정보 리터러시가 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43(2): 91-116.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2024). 2024 건강기능식품 시장 6조 440억 원대 추정... 구매 경험률 82.1% 기록.  
Retrieved from [https://www.khff.or.kr/user/info/InfoBoardUserView.do?\\_menuNo=369&boardSeqno=10035&postsSeqno=119022&utm\\_source=chatgpt.com](https://www.khff.or.kr/user/info/InfoBoardUserView.do?_menuNo=369&boardSeqno=10035&postsSeqno=119022&utm_source=chatgpt.com)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krei.re.kr/foodSurvey/index.do>
- 한국일보.(2024.12.24.). 대한민국 이제 ‘초고령사회’ ... 5명 중 1명 65세. Retrieved fr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412350001404>
- 허소정·배현주(2020).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배달음식의 소비성향 분석.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3(5): 547-561.
- 홍우정·김용화(2021). 고령 소비자를 위한 클린라벨 식품 패키지 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7(1): 447-460.
- 통계청(2024). 2024 고령자 통계.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32917&mid=a1030](https://kostat.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32917&mid=a1030)

1010000&utm\_source=chatgpt.com

- Calligaris, S., M. Moretton, S. Melchior, A. C. Mosca, N. Pellegrini & M. Anese(2022). Designing food for the elderly: the critical impact of food structure. *Food & Function*, 13: 6467-6483.
- Geuens, M.(2023). Research on Influencing Factors of Food Choice and Food Consumption. *Foods*, 12(6): 1-4.
- Kim, D. Y. & H. J. Lim(2020). Association between combinations of nutrition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and food purchasing motives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8: 1-9.
- Kim, H. E. & S. G. Park(2023). Effect of a Single Multi-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 on Nutritional Intake in Korean Elderly: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8-2020. *Nutrients*, 15(7): 1-12.
- Lee, J. J., Y. Kim, J. M. Scott, C. M. Hill & D. Chi(2022). The association of food insecurity with tooth decay and periodontiti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Gerodontology*, 40(2): 251-262.
- Park, K. E., H. Y. Lee, Y. D. Kwon & S. I. Kim(2023).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8: 1-7.
- Pinho, M., J. Lakerveld, M. Harbers, I. Sluijs, R. Vermeulen, A. Huss, J. Boer, W. Verschuren, J. Brug, J. Beulens & J. Mackenbach(2020). Ultra-processed food consumption patterns among older adults in the Netherlands and the role of the food environment. *European Journal of Nutrition*, 60(5): 2567-2580.
- Rha, J. Y., Y. W. Nam, J. H. Yoon & B. H. Lee(2023). Korean consumers' use and concerns about food delivery service.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17(3): 583-596.
- Shim, J. S., K. H. Ha, D. J. Kim & H. C. Kim(2023). Ultra-Processed Food Consumption and Obesity in Korean Adults.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47(4): 547-558.
- Suh, S. H.(2023).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of Mortality in the Elderly Korean Population.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38(5): 522-524.

논문 투고일 : 2025년 01월 09일

논문 심사일 : 2025년 01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25년 02월 28일